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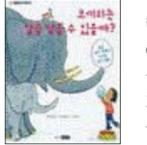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우주의 신비=지금까지 밝혀진 우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앞으로 더 밝혀야 할 우주에 대한 가설



과 이론 등 폭넓은 우주이야기가 실려 있다. 단순하고 명쾌한 그림, 자세한 설명이 마치 아빠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옛 이야기처럼 친근하다. <아이세움·9천원>

▲코끼리는 알을 낳을 수 있을까? =재미있는 그림, 유쾌한 말놀음으로 구성된 '궁금궁금 지식상자' 시리즈. 알을 낳는 새들과 새끼를 낳는 포유동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바다어린이·8천원>



▲빠앗인 일기=단순한 이야기 읽기에서 벗어나 독서력을 높여가는 초등 3~4학년용 위계기획된 창작동화. 일기쓰기를 강요당해 일기쓰기의 즐거움을 잃은 주인공은 사실과 나이의 이야기가 설득력있게 그려져 있다. <한겨레아이들·8천원>



▲갈리아 전기=로마제정의 초석을 굳힌 독재자 카이사르가 직접 들려주는 전쟁이야기. 현장감 있는 전투묘사와 로마군의 군사적 전략, 기술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서해문집·1만1천900원>



▲흙머씨의 비밀코트=생명의 소중함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그림책. 생명의 아이들과 악어친구와 어울리는 흙머씨의 코트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밝혀내기 위해 흙머씨를 따라다닌다. <예림당·9천원>



▲흙머씨의 비밀코트=생명의 소중함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그림책. 생명의 아이들과 악어친구와 어울리는 흙머씨의 코트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밝혀내기 위해 흙머씨를 따라다닌다. <예림당·9천원>

만리장성은 제나라가 처음 축성했다

세계 불가사의 여행 이종호 지음



흔히 인간의 능력과 상상을 뛰어넘는 유적이거나 건축물을 표현할 때 '불가사의'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실제로 인간의 능력과 사유의 범주를 벗어나는 불가사의가 지구상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술과 문명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대인류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념비적인 건물을 만들었다는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다.

인류는 신(神)을 숭배하기 위해 양코르 와트를 건축했고, 크레인으로 운반하기도 힘든 거대한 돌덩이를 동원해 스펀헨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세계사를 뒤흔든 발굴', '과학으로 여는 불가사의'라는 저술을 통해 독자와 친숙한 익숙한 고대문명탐사가 이종호씨는 '세계 불가사의 여행'을 통해 인류사의 기념비적인 유적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필자가 선정한 대상은 올 7월 발표된 '세계 신 7대 불가사의'와 그 후보군, 그리고 필론이 손꼽은 '세계 7대 불가사의'다.

세계 신 7대 불가사의는 '만리장성' '타지마할' '페트라' '콜로세움' '마추픽추' '치첸이트사' '리우 그리스도상'이다. 또 2천200년 전 그리스인 필론이 뽑은 7대 불가사의는 '아르테미스신전' '제우스신상' '마우솔레움' '청동거상' '파로스 등대' '대피라미드' 등이다.

'공중정원'은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지금의 이라크 남부)의 왕궁 안에 꾸며진 정원이다. 정원이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층 건물에 있는 옥상 정원으로 집수조에 물을 저장한 뒤 정기적으로 나무에 수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관리했다고 전해진다.

저자는 세계 곳곳에 있는 위대한 유산을 추적하면서 각 유적의 유래와 전설, 축조배경 등 살피는 것은 물론 건축·미학적 관점에서도 해설을 곁들이고 있다.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齊) 나라가 처음 축성한 것을 바탕으로 명나라, 한나라 등이 이미 건설한 각국의 성벽을 보강하고 연결한 것이다.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은 세기적인 사랑이 탄생시킨 절작이다. 무굴제국의 황제 샤 자한은 아내 토타즈 마할이 숨지자 사후 재회를 기원하면서 22년 동안 그녀를 위한 무덤을 만들었다. 이 무덤이 타지마할이다.

사라진 잉카의 공중도시 불리는 '마추픽추'는 해발 2천280m에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다. 잉카인들은 이 도시의 시설들을 날개를 활짝펴고 있는 새의 모습으로 배치했으며, 도시 건설에 사용된 돌들은 600m 아래 깊은 골짜기에서 채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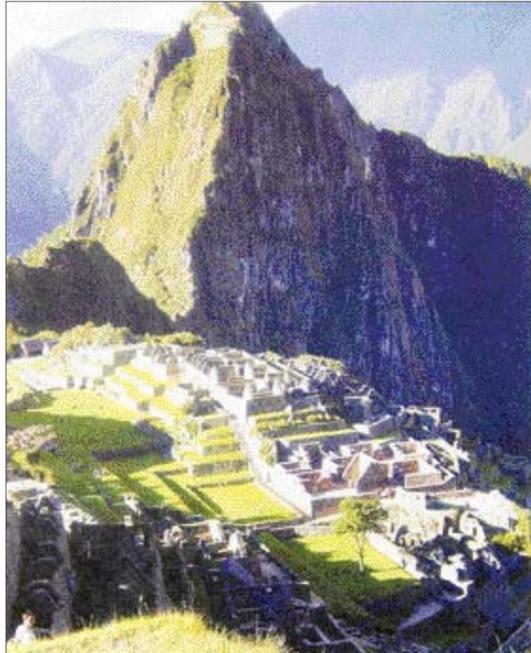
기에서 채취했다.

책에는 유적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컬러사진이 풍부하게 실려있어 세계여행을 떠나기전 한번쯤 들춰볼 만한 여행의 길라잡이기도 하다.

필자 이종호씨는 "이 책에 등장하는 유적들은 영원을 향한 인간의지의 흔적들이 반영된 것들이다"며 "불가능을 넘어서기 위한 인간의 처절한 노력과 경이로운 세계에 열린마음으로 다가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 카라반·2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대 잉카인들이 해발 2천280m에 지점에 건설한 공중도시 '마추픽추' 전경.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이규리 시집 '덧모듬'

"잘 보라 흔들리면서 흔들리면서도 똑같은 동작은 한 번도 되풀이 않는다. 코스모스의 중심은 흔들림이다 흔들리지 않았다면 결코 몰랐을 중심."(코스모스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중에서)

시의 문밖에 서 있는 나로서 시인은 '당나귀와 당나귀 같은 아이'의 존재로 다가온다. 열려진 문틈으로 문밖의 여러 날을 엿보는 시인의 시선(視線). 시를 읽는다는 것은 거꾸로 살짝 열려있는 '당나귀가 식물을 키우는 집, 칠 벗겨진 대문' 사이로 누군가의 집을 엿보는 것. 집 안의 풍경을 다 볼 수 없고, 사는 이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없고, 훑 엿보는 것을 누군가 엿보지 않을까 조바심 내며 눈을 굴려야만 하는 그런 것. 시를 읽는 것은 언제나 속쓰러우면서 부끄러움을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다.

시인의 나이를 보고 감작 놀란다. 여자라 몸, 있음의 부재, 없음의 존재로 이루어진 시어들이 나이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규리 시인의 시는 맛있는 말을 지어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뺀 가지, 이파리임을 느끼게 해준다. 가만히 바라보면 되고, 혹 참을 수 없는 긴장감이 몰려오면 살짝 이파리를 쥐어보아도 좋을 일, 이규리의 시를 만지는 방법이다.

시인은 시에서 절대로 사물에 흥분하는 법이 없고 가만하, 마

'고요한 한판승'이 주는 생명력



을 수면 아래에 가만히 내려놓고 바라본다. "덜 익은 풋감"을 바라보며 "감 꼭지가 가지를 꼭 물고 떨어지듯이 젊은 여자 상주(喪酒) 땀"을 헤아린다. "덜 익은 풋감"에게서 나온 싱싱한 죽음을 일차적인 감정의 주체를 뒤로 한채 "풋감이 익는 시간보다 더 오래, 노을이 마을을 휘감아 울음을 다 독인다 해도 아직 때가 안 된 일들"임을 시인은 덩그러니 말한다. 사물에 미리 가서 알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시인이 해야 할 일이라면 이규리 시인은 그에 있어 너무 성실한 시인이다.

시인은 사물에 대해 몸(言)에 대해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고요한 정적 속에 피어나는, 길가에 있는 듯 없는 듯 흔들리고 있는, 아무 것도 숨기지 않는 "코스모스"에 대해 언제 나왔는지 모르스 소름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거대한 정적 안에서는 작은 기쁨에도 움찔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은 보고 있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정적의 발견은 때로 "나무 밑동을 안았는데 왜 우뚝이 먼저 기척을 하는지 언젠가 당신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떨림과 흔들림으로 "물 위에 거꾸로 박히던 나무를 황급히 뒤로 물러"서는 잔잔하던 수면의 물무늬 같은 것으로 언제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시인의 말대로 "고요한 한판승"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물이나 하면 물이 아니고 얼음인가 하면 온전히 얼음도 아닌 투명할 날 박빙의 승부란 말도 있듯이 광광한 얼음보다 더 무서운 얇은 저 두께, 아무도 얼신 못"하는 "살얼음"같은 생의 허기를 시인은 '보는 것'으로 달래고 있다. 어느 평론가의 말대로 "거대한 허기와 빈약한 생기의 어긋난 지점에서 빗어지"는 이규리의 시는 오히려 시인이 가진 그 허기로 말미암아 삶과 생에 대한 왕성한 생명력을 불러올에 틀림없다.

백가흠 <소설가>

책을 잘 만든 만큼 파는 것도 중요하다

책으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소장 한기호)가 발행하는 격주간지 '기획회의'에 연재되는 '기획자노트'를 엮은 책이 출간됐다. 출판 현장에서 책과 함께 울고 웃는 기획편집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세 권 짜 책.

이번에 출간된 '책으로 세상을 움직이대'가 앞선 두 책과 다른 점은 필자 30명 가운데 절반이 영업자 출신이거나 현지 영업자라는 사실. 책을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잘 파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편집자든 영업자든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염두에 두고 책을 만드는, 이른바 '프로젝트 리더형 편집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한기호 소장은 일본 출판전문 잡지를 인용해 "한 권의 책 또는 기사를 계기로 사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을 움직이는 편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출판계의 최근 동향과 생생한 뒷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1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일본인 스타 블로거의 한국 이야기

사야카의 한국 고고성 사야카 지음



개설한 지 3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300만이 넘는 네티즌의 관심을 불러모은 일본인 스타 블로거의 글이 책으로 나왔다. '사야카의 한국 고고성'은 한국에 사는 일본 처녀 고모츠 사야카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블로그(sayaka.tistory.com)를 만들어 연재한 글들을 엮은 책. 지난 6월말 개성 이래 블로그 순 방문객수는 9월 현재 380만명을 넘어섰고, 검색을 통한 방문객까지 합치면 최소한 500만의 네티즌이 다녀갔다.

저자가 들려주는 한국이야기에는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국인이란 누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식당의 푸짐한 음식문화, 초대받은 집에서의 융숭한 대접과 환대문화, 프라이버시도 깨물어 아줌마들의 이웃사촌문화 등을 예리하고도 순진한 시선으로 접근한다. 블로그에 달린 댓글도 함께 실어 생활상을 더 한다. <미디스북스·9천8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화안내 Happy Time.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무등극장, 제일시네마. 영화 제목, 시간, 가격, 예약 정보 등 상세한 안내.